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 : 마가복음 1:29-45

요절 : 마가복음 1:38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병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병든 인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전도의 사명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29-34)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29,30)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심방을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은 회당에서 3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을 심방하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31)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시몬의 장모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나음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고 온 세상에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32,33)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지면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보다 더 절박한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은 그 시대

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암환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암환자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활발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욕과 음란에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과 열등감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에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심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소망하는 대학에 왔으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깊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게임 중독 마약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성 중독 알콜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등 수많은 중독병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황폐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들과 중독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도 근본적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고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고 어두운 인생을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병이나 내면의 병, 영혼의 병은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34a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4:40)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영적, 육적 의사가 되셔서 영육 간에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II.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35-39)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35) 예수님은 전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방 가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면 정말 피곤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할 때 긴 수면보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을 하시고도 지치지 않으시고 능력 있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새벽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새벽 시간은 바쁜 일과 중에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시고 영적인 방향을 잡아 나아가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항상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귀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연약함을 이기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57:8)" 마틴 루터도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하기를 60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새벽은 숲 속의 새들이 깨우고 일본의 새벽은 공장의 엔진소리가 깨우고 한국의 새벽은 성도들의 기도소리가 깨운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새벽기도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는 나침반(羅針盤)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한 방향을 제공해 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열심히 찬양과 피성과 1:1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과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새벽기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새벽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얼마나 더 힘써야하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축복도 큼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쉼터에 나와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쉼터에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하루의 첫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마치자 시몬과 그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37)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영어로는 'exclaimed'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찾은 것이 너무나 반가워 감탄을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가지지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 그래? 내가 기도가 좀 길었구나. 빨리 가보자" 하며 서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38)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서 물려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전도하러 곧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하

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들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병 낫고 귀신도 나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만의 편안한 삶을 살다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심판을 받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도 잘 아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사명의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사명 완수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문에 오해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미쳤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가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은 어떤 곳입니까? 이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우선 우리는 초대 전대 호남대 동강대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9시간의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불란서,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는 모두 가까운 마을들입니다. 이러한 마을들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심으로 갈릴리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할 때 사람들의 요구에 말려들어 중심을 잃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여 갈릴리 메디칼 센터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고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인기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가지 않으시고 전혀 인기가 없는 전도인의 길을 가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해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전도인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터 받은 바 사명의 길이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굳게 지키심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보다도 가장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19,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를 향하여 주신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던 직업을 떠나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제국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은 모두가 잘 아는 알렉스 퍼거슨(Alex Ferguson) 전 축구감독에 관한 기사가 2015년 한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그는 맨유(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26년간(1986~2013)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13회 우승을 일궈냈고 잉글랜드 FA컵 5회, UEFA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을 더해 총 38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끊임없이 성공의 기록을 쌓아 올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마디로 그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 자기 결혼식 당일에도 예식 후에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그는 축구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가 시간을 다 누리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 임무를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일을 하는 데에도 자기의 소명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캠퍼스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목자의 한 가지 일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III.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40-45)

첫째, 예수님께 꿇어 엎드린 한 나병환자(40)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한 나병(한센 병, 癩病, leprosy 문둥병)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40)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 나병환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었습니다.(눅5:12)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감염 질환으로 팔레스타인 지방과 같이 덥고 못 사는 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남쪽 지방인 경상도에 나병환자가 많아서 경상도 문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병은 조직과 신경을 파괴시켜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몸의 말초부에 결절이 생기다가 결절이 터지면 궤양이 고름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나균은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도 파괴하기 때문에 심하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도 빠지고 시신경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신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찬 것 더운 것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게 됩니다. 또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환자는 온몸에 나병 들린 것을 볼 때 상태가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께양 투성이고 거기에서 고름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와 같이 진동하였습니다. 그의 눈썹은 다 빠지고 코는 문드러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그의 모습은 마치 흉한 짐승의 몰골과 같았습니다. 멸절한 몸이 죽은 송장과 같이 썩어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병은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접촉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환자는 격리 수용시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격리하여 진영(陣營 일정한 구역)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레13:45,46).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또 그가 지나간 자리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 소록도와 같은 격리된 장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와 같이 무서운 고독을 맛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형편에 처해 보지 않고서는 누가 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문둥병은 천형(天刑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절규하며 절망의 심연으로 곤두박질쳤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저주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환자는 나병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병환자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시인 한하운의 『슬픈 반생기』라는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하운은 개화 시기의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 한없이 슬프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소록도로 가는 '전라도 길'과 '손가락 한 마디'는 이런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질름거리며 가는 길 /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전라도 길"

"간밤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한 마디, 머리를 굽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찢다. / 하얀 봉대를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 둔다. / 날이 파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 터를 가려서 깊이깊이 땅 파고 묻어야 하겠다."

나병환자는 나병으로 인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병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몇 번이나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심으로 인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진 목숨을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몹쓸 병도 고쳐 주시고 어떤 몹쓸 죄인도 따듯이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강한 삶의 의욕과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니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로 둘러 싸여 계시기 때문에 그는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추하고 더러운 몸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깊이 형성된 자의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해도 안 된다는 불신감과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마음 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받아 주실까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또한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에게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앞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40b)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깨끗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간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자비와 긍휼만을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눅18:9-14).

둘째,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41-45)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고쳐 주셨습니까?

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41a).

온몸에 나병 들린 자를 용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아왔을 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내가 말로 깨끗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따듯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투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감정이었습니다. 이는 죄로 병든 인간에 대한 메시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멸해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41)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loving touch) 이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

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독한 내면을 잘 아셨습니다. 그의 깊은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가 사랑에 굶주려 울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손길이었습니다.

②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41b)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이 말씀에는 추한 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I am willing) 이 말씀은 그가 낫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추하고 못쓰게 된 인간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보배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받으려면 나균을 멸해야 되듯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추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하였으며 그 효과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9: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요 1:29).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결한 보배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소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점점 변화시켜서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히9:1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어떤 몸쓸 죄인도 구원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몸쓸 죄를 지었는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요한1서1:9,10) 내 죄가 너무 많을 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씻고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 공로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순결한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4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곧 나병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신기하게도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삶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방해

를 받지 않고 조용히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러 건강진단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44).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았습니다(45). 여기서 볼 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봉봉 뜨기보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을 돕되 구제나 치료 각종의 인간적인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해 주어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에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의식으로 봄 학기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